

■ 21세기 多文化·多文明 時代, 일본의 대응

- 多文化·多文明 시대의 到來 背景

- 21세기에는 다양한 문화와 문명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세계 정치 경제 관계를 설정하는 데 ‘문화’가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帝國의 崩壞: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러시아 제국, 합스부르크 제국 등이 붕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등의 식민지 제국이 소멸, 최근에는 소련방제국이 붕괴
- 이에 따라 각 국가는 고유의 가치관과 이념에 기초하여 자기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게 됨. 이는 민족과 민족 그리고 민족과 국가간 분열과 분쟁을 초래함
- 서구 근대주의의 절대성 손상: 민주주의와 시장 원리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 근대주의는 지구 전체의 보편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음
- 예를 들면 국가간 발전의 차이 등에 따라 개인의 자유·인권과 사회 안녕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유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 원리가 모든 나라의 경제적 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 특히 21세기에는 정보화, 세계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간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어 ‘기아 문제’가 심각해지는 한편 ‘환경 문제’와 같은 공업화의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임

- 일본의 문화적 대응

- 일본 전통 문화의 특성은 아시아 동쪽에 위치한 섬나라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문화를 수용 융합해나가는 ‘和’에 있음
- 일본은 이러한 문화적 전통을 토대로 21세기에는 세계 질서를 규율할 새로운 ‘협조와 조화’의 철학을 정립하여 다문화 시대에 대응하려 하고 있음

21세기 多文化・多文明 時代, 일본의 대응

이 글은 日本 綜合研究開發機構의 *NIRA*, 1999. vol. 12 no. 3., 중 “多文化・多文明の世紀,, 日本文化の可能性お考える”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

□ 21세기는 多文化・多文明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21세기를 앞두고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결정짓는 데 있어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다양한 ‘문화중시론’이 제기됨
- 이 중에서 21세기에는 다양한 문화와 문명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이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우려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일본의 학자들은 21세기를 ‘多文化・多文明 時代’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일본 문화의 대처 방향을 논의하고 있음

< 문화 중시론의 구분 >

기본 명제	주창자	주요 내용
문화가 삶의 기본 수단이다	로렌스 해리슨, 토마스 소웰	각 민족의 경제적 번영은 문화에 의해 결정됨
문화는 세계 인식의 기본틀이다	아리카 이리에	민족 국가를 ‘문화 시스템’으로 파악하여 국제 관계는 문화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으로 파악
문화는 사회적 신뢰 관계를 결정한다	후쿠야마	문화에 의해 결정되는 사회적 신뢰 관계가 기업 제도의 성격을 규정하고 이것이 국가 경제 발전을 좌우함
세계 문화는 수렴한다	아놀드 토인비 어니스트 겔너	주도적인 기술력이나 경제력에 의한 글로벌화에 의해 각 지역 문화의 특수성이 사라짐
문명 충돌 시대가 온다	사무엘 헌팅턴	21세기 탈냉전 시대 갈등의 원천은 상이한 문명 집단간에 나타남

□ 多文化・多文明 시대의 到來 背景

- 첫째는 帝國의 崩壞이다

- 20세기는 '제국 붕괴의 시대'였음.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러시아 제국, 합스부르크 제국, 오스만 제국이 붕괴하였으며,
-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식민지 제국이 소멸하였고 최근에는 소련방제국이 붕괴하였음
- 원래 제국은 종주국의 권력과 이데올로기로 피지배국들을 지배해 왔음. 제국의 붕괴는 제국 내 각 민족이나 국가들의 독립성과 자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됨
- 이에 따라 각 국가는 고유의 가치관과 이념에 기초하여 자기 주장을 강력히 제기하게 됨. 이는 민족과 민족 그리고 민족과 국가간 분열과 분쟁을 초래함
- 이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보스니아와 체첸 분쟁, 아프리카의 부족 전쟁, 코소보 사태 등임

- 둘째는 20세기 세계의 지도 이념인 서구 근대주의의 절대성이 손상받고 있다

- '끊임없는 발전과 진보'가 예상되던 서구 근대주의는 서구 과학 문명에 기초한 공업화에 기반을 둔 것이었음
- 또한 서구 근대주의는 '만민이 신 앞에 평등하다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 원리를 세계 보편 문명으로 구축하려는 것임
- 그러나 이와 같은 서구류의 보편 문명은 반드시 지구 전체의 보편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제기되고 있음
- 예를 들면 국가간 발전의 차이 등에 따라 개인의 자유·인권과 사회적 안녕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유 경쟁을 바탕으로 한 시장 원리가 모든 나라의 경제적 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임
- 또한 21세기에는 정보화, 세계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가간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지게되어 '기아 문제'가 심각해지는 한편, '환경 문제'와 같은 공업화의 부작용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임

- 이상과 같은 서구와 비서구간의 가치관 차이와 빈부 격차 등에 의해 21세기는 지역간 문화의 다양성에 의해 세계 정치 질서가 규정되는 '다문화 시대'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임

□ 일본 문화의 특성과 대응

- 일본 전통 문화의 특성은 다양한 문화를 수용 융합해나가는 ‘和’에 있음
 -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한 일본 열도에는 이전부터 남북으로 열린 길을 통해 아시아 대륙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가 전래되었음
 - 이처럼 다양하게 전래된 문화들을 흡수하고 융화시켜서 일본은 고유한 일본 문화를 형성해 왔음

- 21세기에는 세계 질서를 규율할 새로운 ‘협조와 조화’의 철학을 정립해야 함
 - 다시 말해 21세기에 민족과 문화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문화와 문명이 지니고 있는 고유의 가치 체계의 특색을 상호 용인하고 포용하는 관용성이 필요함
 - 또한 지역 격차와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를 포함하여 근대 국가의 특징인 自國利益中心이라는 국가 이기주의를 극복하여야 함
 - 이처럼 21세기 세계 질서를 규율할 새로운 가치관은 경쟁 원리에 기초하여 보편 문명을 구축하려는 서구 근대주의의 ‘끊임없는 진보와 발전의 사상’ 대신에 다양한 문화와 문명의 공존공생을 목적으로 하는 ‘협조와 조화의 철학’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임

- 일본 문화의 전통은 새로운 가치관 형성에 높은 적응력을 발휘할 것이 기대됨
 - 21세기 세계가 西歐 대 非西歐라는 거대 문명간의 대결 구도가 성립된다 해도, 일본은 전통적으로 다양성 속에서 고유의 문화를 형성되어왔으므로 양 문화의 수용과 흡수를 용이하게 이루어나갈 것임
 - 하지만 일본 문화의 약점은 다양한 문화의 흡수 능력에 비해 새롭게 형성된 문화를 세계로 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임. 이러한 특성은 일본의 경제 규모에 비해 세계 경제에 대한 공헌도가 매우 낮은 데서도 발견할 수 있음
 - 다시 말해 21세기 다문화 시대에 일본은 자국 스스로의 대응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를 세계적인 규범으로까지 발현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미흡한 것임
 - 이것이 현재 일본 지식인들이 지니고 있는 일본 문화 현상의 문제 의식임

■ 유병규 연구위원 bkyoo@hri.co.kr ☎724-4060